

II.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문화의 형성

주제 18) 유럽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학 교	
학 번	
이 름	

1. (1))의 르네상스

- 1) 의미: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는 부활, 재생을 의미하며,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을 의미하는 문예 부흥운동
- 2) 유럽에서 가장 먼저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은 (1))

※ (1))에서 가장 먼저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유

- ① 과거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유물, 유적이 많았음.
- ②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의 발달로 (1))에서는 부유한 상인, 시민층이 성장
⇒ 당시 예술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
- ③ 십자군 전쟁 이후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유입되었고,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후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이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고전 문화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음.

3) 르네상스의 기본이념은 (2))

- ① 모든 문화의 중심은 (3))에게 있다고 보았던 것으로 중세시대의 신 중심의 가치관에서 탈피
- ② 개성적인 존재로서의 (3))의 가치를 재조명
- ③ 과거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 강조하고 있던 (3)) 중심적인 문화의 풍조를 계승하는 가운데 (3))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중점

4) 문학과 예술의 발달

- ① (5))는 인간의 본성을 노래한 서정시로 표현
- ② (6))는 「테카메론」을 지어 인간의 욕망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남김
- ③ 단테는 「(7))」을 지어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그리고 그를 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중심으로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집대성
- ④ 마키아벨리는 「(8))」을 지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군주의 이상향을 제시

- 목적을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착한 척을 잘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 세상은 인간의 근엄한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 속에서 인과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정치 또한 도덕적인 선악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때로는 냉혹하게, 때로는 간사하게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 군주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거나, 강대국의 침략에 무너지는 약소국이 되는 것은 국민 전체가 불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군주가 인색하다는 평을 듣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면 과감히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행동하여야 하는 것이 군주의 역할이다.

⑤ 다양한 예술작품의 등장

- ㉞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 추구하는 가운데 사실적인 표현기법을 사용



고대 그리스 회화



중세시대의 회화



르네상스 시대 회화

- ㉞ 대표적인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2.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1) (¹)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16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

2) 특징: ()

①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는 『(⁹)』에서 부패한 교회를 비판

요즈음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들은 베드로나 바울로에게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운 일만 찾는다. 교황은 우신 덕분에 누구보다도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 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의 눈만 번뜩이면 그것으로 충분히 크리스트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에라스무스 『(⁹)』 -

②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¹⁰)』를 통해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

양 떼들은 경지, 가옥, 도시들을 황폐화합니다. ……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귀족과 신사, 심지어 수도원장들까지도 땅의 전 소유자들이 거두어들인 옛 시대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 그들은 경작용 농지를 남겨 놓지 않고 모든 땅을 울타리로 둘러막아 목장으로 만들고, 가옥을 헐어버리고 마을을 없애버립니다.

- 토머스 모어, 『(¹⁰)』 -

③ 라틴어를 대신하여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한 국민 문학이 발달

- 세르반테스, 『(¹¹)』: 몰락한 기사들의 모습을 풍자
- 라블레의 『가르강튀아』: 중세의 교육을 비판
- 셰익스피어: 다양한 희곡 작품을 쓰면서 영문학 발달에 기여
- 몽테뉴의 수상록,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④ 미술에서는 서민의 생활을 묘사한 작품이 등장

3. 르네상스 시대 과학의 발달

1) 우주관의 변화

- ① 기존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의 모든 천체가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지지를 받고 있었음
- ② 하지만 기존의 천동설이 무너지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 갈릴레이와 케플러가 이를 증명
- ③ 이러한 우주관의 변화는 기존의 신 중심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중세 교회 중심의 문화에도 타격

2) ()의 전래

- ① 중국에서 ()이 전래되면서 이를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함
- ② 주로 대포나 총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면서 두꺼운 장갑과 높은 성이 무용지물이 됨
- ③ 이에 따라 중세 시대 전투의 핵심이었던 ()계층이 불필요해지면서 이들의 몰락이 가속화됨

3) ()의 전래

- ① 중국에서 ()이 전래되면서 바다에서도 정확한 방향의 파악이 가능해짐
- ② 이에 따라 원거리 항해, 신대륙 발견, 신향로 개척이 가능

4) 인쇄기술의 발달(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 개발), 지식 전파 용이

4. 종교개혁

1) 종교개혁의 배경

- ① 십자군 전쟁과 교회의 분열 등으로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교회에 대한 도전이 나타남
- ② 16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
- ③ 이에 따라 원시 기독교 복귀, (12)에 명시되지 않은 교리나 의식을 반대하고 성직자의 권능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함.

2) (13)의 종교개혁

- ① (13)의 종교개혁이 나타날 무렵 독일의 상황
 - ㉠ 독일은 당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연방국가로 강력한 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
 - ㉡ 교황은 독일을 착취대상으로 여겨 교회에 의한 착취가 매우 심하여 독일의 농민층은 교회에 대한 불만이 컸음.
- ②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14)는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위해 (15) 판매
- ③ 당시 신학자였던 (13)는 교회의 이러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발표

※ 「95개조 반박문」의 주요 내용

제6조 교황은 신의 용서를 선언하거나 시인하는 이외의 어떠한 죄도 용서할 권한이 없다.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뿐이다.

제21조 설교자가 교황의 면벌부에 의해 모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27조 그들은 돈궤 속에 금화가 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자마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뛰쳐나온다고 한다.

제36조 진실로 회개한 모든 크리스티교도는 면벌부 없이도 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 ㉠ (13)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신앙의 근거는 『(12)』라고 주장하며 면벌부 판매를 비판
- ㉡ 당시의 (13)의 주장이 독일 전역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렵 발명된 (16)로 문서의 대량 출판이 가능했기 때문
- ④ 이러한 (13)의 행동에 분개한 교황청에서는 (13)를 파문시켰으나 (13)는 교황의 파문장을 찢어버리며 반박
- ⑤ 신성로마제국에서는 보름스의 국회에서 (13)를 재판
 - ⇒ (13)의 파문을 인정하고, (13)에 대한 법적 보호 박탈
- ⑥ 보름스 국회의 심문과정을 지켜본 제후 중 일부가 (13)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성에서 보호
 - ⇒ 대외활동이 어려웠던 (13)는 (12)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보급
- ⑦ 이러한 (13)의 활동은 단순한 종교 개혁의 성격을 넘어 사회 개혁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농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반봉건적 투쟁에 (13)의 지지를 호소
 - ⇒ (13)는 처음에는 농민들을 지지했으나 이들의 투쟁이 과격해지자 이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제후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잃었으나 그를 지지하는 제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음
- ⑧ 루터를 지지하던 제후들과 도시들은 (17)동맹을 결성하여 카톨릭을 믿는 교황과 신성로마제국에 대해서 투쟁을 전개
- ⑨ 결국 장기간에 걸친 투쟁 끝에 (18)을 체결하여 (13)파의 종교적 자유 인정

※ (18)의 주요 내용

- (13)파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공인
- 제후와 자치 도시에 종교 선택권 부여하면서 개인의 신앙 자유는 허용하지 않았음.
- (13)파 교회가 점거한 교회 재산을 그들의 것으로 인정.

3) (19)의 종교개혁

- ① 스위스에서는 (19)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20)을 주장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라, 우리는 신이 그 영원의 섭리로서 누구를 구제하려고 원하고 또한, 누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가를 그 영원불변의 섭리 속에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 (19), 「크리스토티안 강요」 -

- ② 인간은 죄악으로 타락(성악설)했다고 보았고 인간에 의한 구제 가능성 부인하고 신에 의한 구원만이 가능하다고 봄
 ③ (12)에 나와 있지 않는 일체의 교리와 의식을 배격하고, 장로제도를 통해 교회에 자치적 요소 도입
 ④ 당시 직업은 인간이 신에 의해 구원받을 것을 예정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 ⇒ (21)
 ⑤ 중세시대 때 돈을 모으는 행위를 탐욕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천시받았던 상공업자들은 (19)의 (21)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윤 추구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됨.

신이 크리스토티안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신은 인간 생활의 사회적 구성이 그의 가르침에 따라, 그 목적에 맞도록 조직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칼뱅파 신도가 현세에서 하는 사회적인 일은 바로 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다. …… 그들은 부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사악하다고 여기면서도, 직업 노동의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로 생각하였다.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⑥ (19)의 입장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확산되어 해당 지역에 정착
 ⇒ 잉글랜드의 (22), 스코틀랜드의 (23)
 ⇒ 프랑스의 (24), 네덜란드의 (25)

4) 영국 국교회의 성립

- ① 헨리 8세는 카톨릭 신자였던 아내와 자신의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자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함
 ② 헨리 8세는 (26)을 내려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고 영국 교회를 교황의 지배에서 독립 선언

국왕 폐하는 마땅히 법에 따라 실제로 또 법적으로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이시다...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 수장의 권위에 딸려 있는 모든 영예, 존엄, 지위, 재판권, 특권, 면제권, 수익, 재화를 소유하며 향유한다.

- (26) -

- ⑦ 수도원을 해산하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
 ⑧ (26)을 통해 카톨릭과는 별개의 입장을 가진 영국만의 교회를 만들고자 함.
 ⑨ 에드워드 6세 때 '공동(일반) 기도서' 작성, 영국 교회의 교리를 규정하면서 자신들만의 교리 채택
 ③ 하지만 메리 여왕 때 일시적으로 카톨릭 복귀
 ④ 이후 엘리자베스 1세는 (27)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확립
 ⑦ 로마 카톨릭교의 의식과 신교의 교리가 혼합된 성격으로 신앙적으로는 철저하지 않음
 ⑧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신교(개신교)의 확산과 16세기 유럽의 종교 분포



3. 유럽 내 종교갈등과 30년 전쟁

1) 유럽의 종교가 기존의 로마 카톨릭(구교)와 (¹³), (¹⁹)를 대표로 하는 신교로 나뉘어지면서 이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종교 분쟁이 발발

① 로마 카톨릭의 교세 회복 노력

㉠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지금까지 나타난 교회의 폐단의 시정 노력이 나타남

- 카톨릭의 교리 재확인,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재확인
- 금서목록 작성을 통한 신교의 도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

㉡ 종교재판소 설치를 통해 교리에 대한 엄정한 적용 시도

㉢ 예수회를 통해 신교에 의해 빼앗긴 세력 만회 시도

- 로올라가 교황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군대식 단체 결성
- 교육과 선교활동에 주력하면서 신교 확산 저지를 위해서 노력
- 해외에 활발한 선교활동 벌임(아시아, 아프리카)

② 네덜란드의 (²⁵)이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에스파냐에 반발

⇒ 프랑스와 영국의 도움을 받아 (²⁸)을 통해 에스파냐로부터 네덜란드 독립

③ 프랑스의 (²⁴)전쟁

㉠ 원래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던 국가였으나, 프랑스에서 상인과 수공업자 등의 성장이 나타남

⇒ 당시 프랑스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¹⁹)파 신교도였던 (²⁴)가 다수

㉡ 이들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구교도들이 위그노를 습격하여 학살한 바르톨로뮤 날의 대학살이 나타났고, 이러한 구교도와 신교도의 대립은 왕위계승다툼까지 이어지게 됨

㉢ 당시 왕으로 즉위한 (²⁹)는 신교도였으나, 프랑스의 안정을 위해 카톨릭으로 개종하였고, 대신 (²⁴)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³⁰)을 발표

제1조 1585년 3월 초 이후부터 나(앙리 4세)의 즉위에 이르는 동안, 나아가 그 이전의 소란을 통해서 각지에서 일어난 일체의 사건은 없었던 일로 기억에서 지워야 한다.

제6조 내 백성들 사이에 소란과 분쟁의 동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개혁파 신도가 나의 지배 아래 있는 왕국의 모든 도시에서 어떠한 심문이나 박해도 받지 않고, 또한 재산을 빼앗김 없이 거주할 것을 인정한다.

제22조 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입학할 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30년 전쟁의 발발

① 배경

㉠ 독일에서 (¹⁸) 이후에도 여전히 종교적 갈등이 나타남

㉡ 신성로마 황제가 독일 정치 방해하였으며, 발트해 진출문제로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대립

㉢ 독일의 합스부르크가와 프랑스 부르봉가의 왕조적 경쟁이 심화

② 이에 따라 신성로마제국과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한 구교 국가들과 영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신교 국가들의 종교전쟁이 발발(당시 예외적으로 (³¹)는 구교국가지만 신교 국가 지원)

③ 30년 동안의 치열한 전쟁 끝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의 패배로 전쟁이 일단락

④ 결과

㉠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패배로 신성로마제국의 제후들의 완전한 독립이 인정

㉡ (²⁸)의 체결

- (¹⁹)파 신교도들의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인정, 구교가 몰수한 신교의 재산인정
- 프랑스와 스웨덴이 유럽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
- 네덜란드의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
- 신성로마제국의 실질적인 붕괴, 신성로마제국의 제후들의 주권과 정치적인 독립이 인정